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	2020. 4. 24. / (총 3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분TF	과 장	홍 정 익	전 화	044-202-2860
	담 당 자	오 승 민		044-202-2861

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, 국립마산병원 격려 방문

-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은 4월 24일(금) 오후 4시에 국립마산병원*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다.

*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

- 국립마산병원(원장 박승규)은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1941년에 개원하여 결핵 전문 진료, 임상연구, 교육 등에 힘써 온 국립결핵병원이다.

-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던 2월 23일 이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, 기존 결핵환자를 소개(疏開)하고 시설을 정비*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고 있다.

* 기존 결핵환자는 국립목포병원 등으로 이동, 격리병동 2개 병동(80병상) 운영

- 특히 대구 지역 일반 코로나19 환자 치료 외에도 정신병원인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총 68명의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등 정신질환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다.

* 대구 지역 일반 코로나19 환자 112명(2월 25일 이후 누적), 제2미주병원 환자 68명(3월 30일 이후), 청도대남병원 환자 6명(4월 14일 이후) 등 총 186명 치료

- 코로나19 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위해 국립마산병원 의료진 외에 국립정신건강센터, 국립공주병원, 국립나주병원, 국립춘천병원 등 국립정신병원 의료진 43명 및 민간지원 의료진 24명 등 총 131명의 의료인력(의사 13명, 간호진 등 118명)이 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.

-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국립마산병원 원장 및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‘덕분에’* 감사 카드 및 배지를 수여하고, “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에 나서준 것에 감사드린다”고 격려하였다.

* (덕분에 챌린지) 일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의료진의 사기·자부심 진작을 위하여, ‘의료진 덕분에’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은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

- 특히 “코로나19에 감염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에서 내과와 정신과 치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, 적극적으로 환자를 전원(轉院) 받아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.”라고 말했다.

- 아울러 “의료진이 어려움 없이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전했다.

< 참고 > 국립마산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

참고

국립마산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

□ 추진 경과

-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(2.23. 중수본-318호) 및 결핵환자 소개(疏開) 추진
- 4. 24. 현재 입원 186명, 퇴원 135명, 치료 중 51명
- 기존 결핵환자 소개*(~2.25.) 및 병동시설 정비 추진(~2.27.)
- * 결핵 입원환자 총 80명 소개 완료(국립목포병원, 서울시립서북병원 등)
- 대구 일반환자 67명 최초 입원(2.28.)
- 제2미주병원 환자 68명 입원(3.30.)

□ 대응 현황

- (병동) 격리병동 2개 병동(80병상) 운영
- * 김해공항 입국 유증상자 격리시설(11병상) 별도 운영(3.22.~, 총 9명 이용)
- (대구 일반환자) 총 입원 112명, 완치 퇴원 52명, 타 병원 전원* 60명(2.25~)
- * 제2미주병원 정신질환 확진자 수용을 위해 일반 확진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
- (제이미주병원) 총 입원 68명, 완치 퇴원 5명, 타 병원 전원* 16명(3.30~)
- * 중증폐렴, 동반질환 악화 등으로 인한 상급병원으로 이송
- (청도대남병원) 총 입원 6명* (4.14~)
- * 완치 이후 재확진 환자